

편집자 서문

한국법사학회의 전문학술지 『법사학연구』 제56호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1973년 3월에 설립된 한국법사학회가 1974년 7월에 『법사학연구』 창간호를 발행한 지 44년만에 제56호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출발 당시부터 ‘소수’ 학회의 학술지였던 『법사학연구』가, 수많은 전문학술지들이 등장하고 있는 학계의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어져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을 자축하고자 합니다.

『법사학연구』 제56호의 특징은 무엇보다 ‘근세 동아시아 민사재판의 실태와 성격’을 주제로 한 특집을 구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번 특집에는 ‘명청(明清) 중국의 민사재판’, ‘토쿠가와 일본의 민사재판’, ‘근세 조선의 민사재판’ 그리고 ‘근세 몽골의 민사재판의 실태와 성격을 분석한 논문들을 실었습니다. 이 논문들은 지난 2017년 6월 24일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및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과 공동으로 한국법사학회가 제121회 정례학술회의를 겸하여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의 발표문들을, 학술대회 당일의 열띤 토론을 반영하여 필자들이 최종 완성한 것입니다. 다양한 시각과 분석을 통해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몽골의 근세 민사재판의 실태와 성격을 각각 제시하고, 아울러 동아시아 근세 민사재판의 전체상을 그려내보이는 이번 특집은 『법사학연구』 제56호를 더욱 빛나게 해주는 것으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제56호는 한말과 대한제국기 그리고 1910년대의 한국 법사에 관한 세 편의 논문들(『한말 신용거래 양상에 대한 법적 분석』, 『대한제국기 ‘분반(分半) 판결’에 관한 연구』, 『대한민국임시정부 이전 정치체제 구상』)도 실게 되어, 미리 기획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근대 한국 법사

의 다양한 모습들을 그려내보이는 또 하나의 특집을 구성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한 편의 번역(『라틴어 법텍스트 번역에 관하여』)도 실음으로써 더욱 풍성한 학술지가 되었습니다.

『법사학연구』 제56호에 훌륭한 옥고를 기고해주신 필자 여러분께, 그리고 엄격한 심사를 해주신 심사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호에도 많은 훌륭한 글들을 모아 풍성한 『법사학연구』를 발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7.10.30.

『법사학연구』 편집위원장